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언어규칙

언어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시대에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규칙을 알아보자.

첫째, 단순성이다. 쉬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전에 찾아보아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 될수록 듣는 사람은 이해가 쉬워진다.

둘째, 간결성이다. 한 마디로 재압하라는 말도 있듯이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네 단어로 늘려 쓰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광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적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기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기고 때로는 시각적인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한다.

셋째, 신뢰성이다. 말에 진실성이



김 양 옥

한국스피치먼절련협회 대표

부족하거나 그 말이 일반적인 사실, 환경, 인식과 모순되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어느 불꽃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그 재능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기업으로서는 브랜드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일만큼 귀중한 것도 없다. 절제되지 못한 언어로 과장된 약속들을 늘어놓는 일은 광장히 위험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며, 당신이 곧 당신의 말이다." 라는 교훈이 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하고 그 후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넷째, 일관성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성공을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규칙이다.

메시지의 반복은 정치연설에서도 중요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은 즐거움

로 하면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호감을 갖는다.

다섯째, 참신성이다. 효과적인 언어는 낡은 개념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할 때 탄생한다.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낡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놀라움과 흥미로움이 조합되면 누구라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메시지가 탄생한다. 이런 때는 종종 유머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그러 몰랐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면 메시지가 성공한 것이다.

여섯째, 리듬감이다. 말의 소리와 짜임새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야 한다. 음악은 미술 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언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언어의 리듬은 그

자체로 음악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리로 각인 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 흡입력이다. 흡입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독려하고 지켜세우고 촉구하라는 것이다.

메시지에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담겨있어야 한다.

비즈니스계나 정치계에서는 흡입력 있는 언어를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핵심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인격화 하여 감정적인 기억을 유발하는 것이다. 생동감을 추구할 때도 흡입력 있는 메시지를 활용하면 좋다.

여덟 번째, 시각화이다. 대중에게 먹히는 말은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언어를 통해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스피치에서 시각화 과정을 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상상이다.

수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암시를 주는 유일한 단어가기 때문이다. 상상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일 것이다. 우리는 영화, TV, 광고판,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이 효과적인 언어규칙을 잘 활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자기의 의견, 주장 등을 잘 전달하여 호감과 공감을 얻어 어느 조직에서나 성공의 스피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스피치를 무의식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스피치를 하자.

사설

어느 노인복지관의 노인성상담센터

전주 시내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성상담센터' 문을 열었다. 성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겔 운동(Kegel exercise)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이 운동은 당초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1948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Arnold Kegel)이 개발했다. 이는 정력 강화와 조루 예방은 물론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운동은 항문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회음부를 조이는 운동이다. 남성의 회음부는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고 여성은 질과 항문 사이에 있다. 그 부분에 힘을 주는 것이다.

요도 괄약근을 단련하는 운동이다. 요도 괄약근은 음경에 유입되는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물의 역할을 한다. 이곳을 단련하면 음경에 고인 혈액을 잘 가두어 발기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케겔 운동은 엉덩이나 항문에 힘을 준다고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회음부에 손을 대고 힘이 느껴질 만큼 해야 한다. '힘을 줬다'를 5초간 유지한 다음, 5초간 '힘을 졌다'를 반복한다.

그리고 조여져 있는 시간을 늘려간다. 남성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요실금은 요도 괄약근 수축력이 떨어져 소변이 새는 증상이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요실금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케겔 운동은 조금씩 매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3~6개월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케겔 운동은 항문에 뻘대를 찾았다고 상상하고, 물을 빨아 담긴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조이면 된다.

케겔 운동을 시작할 때는 4~5회 정도만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힘을 주고 버티는 시간을 10초로 늘리고 반복 횟수도 점차 늘린다. 노인 성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때이다.

기업 메세나 우진문화공간

기업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주시 진북동 우진문화공간은 지난 2004년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문을 열었다.

우진문화공간은 우진건설, 우진관광개발(태인컨트리클럽)의 회장에 의해 탄생했다. 그 뒤 지역 문화예술 창작의 산실로 거듭났다. 특히 젊은 예술인들의 실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실제로 국악, 양악, 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초청했다.

무대를 꾸미는 '우리소리 우리 가락'이나, 45세 이상의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초대작가를 선정해 전시를 여는 '청년작가초대전'이 대표적이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이어온 유서 깊은 무대다. 우진문화공간이 전주에 관소리 공연을 부활시키면서 귀명창들의 수도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했다.

'관소리 다섯바탕의 멋'은 최

고의 명창을 초청해 하루에 한바탕씩, 총 5일간 진행되기도 했다. 고(故) 박동진 명창과 안숙선 명창이 단골 출연했고, 등판계 주장이던 고(故) 강도근 명창과 오정숙, 성창순 등 내로라하는 명창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이를 통해 2008년 관소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재에 등재되는 동력이 됐다. 관소리 다섯바탕의 멋'은 설립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우진문화공간의 2개 동은 크게 갤러리등과 예술극장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갤러리, 소극장(175석 규모) 등의 전시·공연 시설은 물론 오페라실, 기악·성악 연습실, 무용 연습실, 세미나실 등 창작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김경곤 회장은 2013년 한국메세나협회에 수여하는 '한국메세나대상-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 우진문화공간이 전북지역 예술인들의 파트너로서, 함께 작업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여기에 넣으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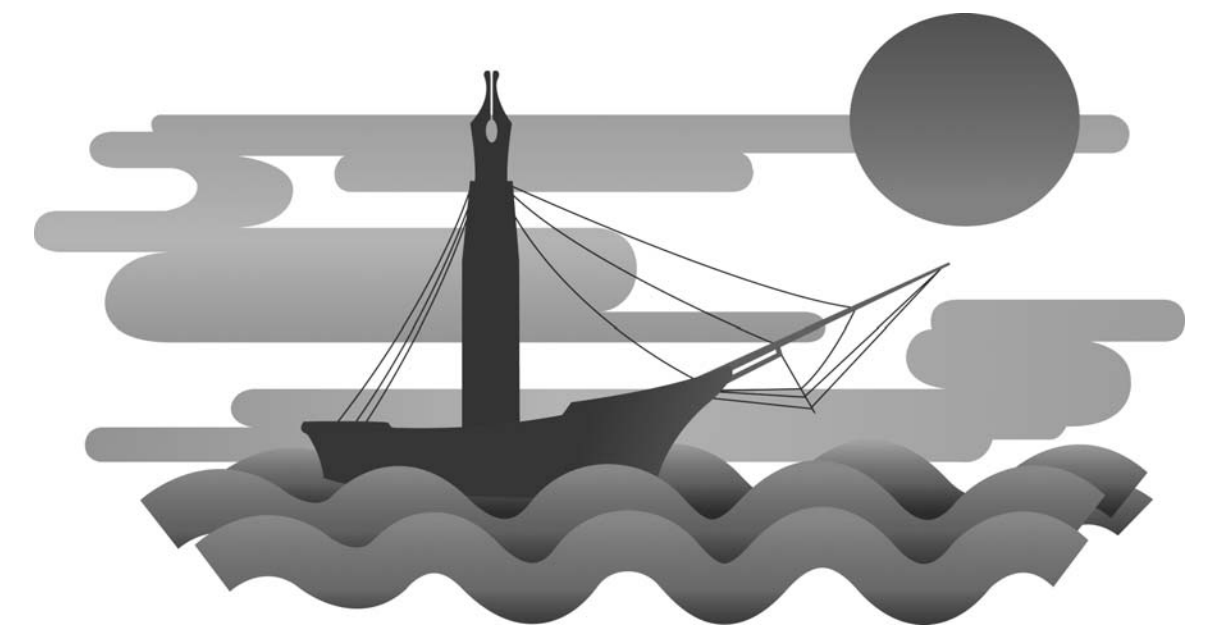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기아 구호 단체 '필리번션스'에서 식품 포장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스웨덴, 러시아 상대 대비 태세 강화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북부 고틀란드의 비스뷔 부근에서 스웨덴군 고틀란드 연대 병사들이 전차를 타고 순찰하고 있다. 스웨덴군 고위 관계자는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